

“ 순례자의 감사 ”

■ 이종윤 원로목사

시편 107편은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순례자의 시로 애송되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출과 고국에의 귀환을 송회하며,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요청하되 찬송하자는 것이 본시의 기초다.

포로생활 중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은복이 주어졌을 경우 할 말을 잃게 마련이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의나 공적으로 인하여 이 같은 은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70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인한 은복인 것이다.

포로생활에서 입은 은총 4가지를 지적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이다.를 후렴처럼 반복한다. 광야의 방황에서 거할 것을 주신 주님! 길도 안내자도 없는 광야나 사막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영국에서 화란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사막 길을 걷는 이처럼 거할 곳이 없었던 청교도들은 쫓김과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끌려갔고 감시를 당했으며 그러나 1620년 미국 땅에 도착한 그들은 집도 교회당도 갖게 되었으니 감사, 찬송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진 만족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수없이 드렸고(4-9)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은 흠사 토굴 속에 유포된 수인(囚人)과도 같아서 암흑과 압박과 고독과 고통이 극에 달한 나날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늦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구출해 주셨다.(10-16) 포로생활은 칫감으로 생긴 병과 같아서 치유를 빌 염치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 같은 그들을 파멸에서 구해주셨다.(17-22) 노도광풍에서 구원받았다.(23-32) 바벨론 포로에서 가정, 국가도 없는 생활이나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 65일간이나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청교도들은 다른 환경이지만 그 위태로움을 극복한 하나님 신앙은 비슷하다.(23-32)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강을 말려 사막이 되게 하시고 옥토로 소금밭이 되게 하셨으나 이제 는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고 마른 땅에도 물이 흐르게 하시며 굶주린 자들도 자리 잡아 거할 성을 세우게 하셨으니 밭에서 소산이 풍성하고 우리에는 가축이 불어나며 집에는 자녀들이 번창하게 된 것이다.

무릇 마음이 바른 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할 것이나 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주목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청교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의 삶에도 기복이 있으나 하나님 백성은 결국 영원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보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도덕적인 하나님이 도덕적 세계에 우리가 거하고 죄를 경계케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 투옥,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했다. 이 놀라운 은복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청교도들의 공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676호] 2020년 2월 15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50명 미만의 인원만 참석하는 교회에서의 1,2,3부 예배와 각 처소에서의 온라인 영상예배를 함께 드리며, 1,2,3부 예배 모두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영상예배 지침에 따라 예배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하고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은 아래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1011_sermon.jpg


아울러 교회예배에 참석하려는 성도님들 중 지난주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 예배와 다른 시간의 예배로 옮겨 참석할 성도님 또는 새로이 참석을 원하는 성도님만 다락방장이나 교구간사님들께 알려주시고 1,2부 보다는 가능한 약간의 여유가 있는 3부 예배를 이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찬양예배 및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야),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케냐), 김종일(박준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펜, 사지, 에베(인도), 스프로트(보이), 필리몬, 프란소드, 수레시, 수바시, 알로롱, 비사부(뽀도, 보디소프, 린롬, 수만준(벵골 라티사)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인(필리위),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마다카스키르)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

■ 고전 4:6

사도 바울은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고백이 단지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을 보았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본을 삼을 만한 교회 일꾼과 성도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의 눈 밖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는 세상 지향적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의 소유이 아닌 성령의 소유를 따라 사는 영적 원리에 더 충실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더불어 “이 일에 본을 보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중세의 어떤 신학자의 말씀입니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딤후 4:12). 목사나 성도의 삶에서 이 부분은 건너 뛸 수 없는 덕목들입니다. 말에 덕이 있고 은혜가 넘쳐야 하며 일구이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자가 아니라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자로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라고 강조하였습니다(고전 4:16, 11:1). 과거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건 목자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목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양들이 희생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 지도자들,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목사 및 성도들이 되도록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 탐욕을 버려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교회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록한 기준을 넘어가는 것 때문이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탐심 때문입니다.(약 1:14-15).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의 원인은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골 3:5-6). 목사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가장 큰 유혹도 자기 과시욕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탈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도 마구 사용하고 심지어 비굴한 것들도 서슴지 않고 덤벼듭니다. 여기에 과시욕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욕망까지 가세하게 되면 견잡을 수 없는 타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는 기록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성도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건너뛰면 누가 이 말씀으로 자신의 말과 행실을 걸러서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다니겠습니까?

3. 겸손의 계곡에서 살라

인생은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위풍당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업적 지향주의적인 사람들이 대개 그런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는 내적 연습에 치중할 것을 권면합니다. 반면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치중하는 자들은 내적으로 겸손한 덕목을 이루고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도가 고훈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은혜를 그런 자들에게 더욱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단련하는 일보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과 겸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맺는 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특히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을 우리의 탐심으로 붕괴시키는 악에서 떠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사 26:3-4...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6(시 50)...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28(28)...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4:6-8...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212(347)...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금주의 성구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나(고전 4:7)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양예배(인터넷 영상)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조원영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11:4 인 도 자
- 찬 송 38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창 18:1-15 인터넷 영상
- 설 교 ...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 인터넷 영상
- 찬 송 325(359) 다 함 께
-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인터넷 영상)

오후 7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재홍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81:1 인 도 자
- 찬 송 453(506)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벧전 1:14-16 인터넷 영상
- 설 교 ... “너희를 부르신 자 같이” ... 인터넷 영상
- 합심기도 인터넷 영상
- 주기도 인터넷 영상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 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461명	269명	1,730명	214명	1,543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0/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4일	현 금	47,929,483	
	교회학교운영비		1,470,000
	선 교 비		900,000
	행 사 비		725,000
	출 판 비		420,000
	복리후생비		253,900
	통 신 비		292,580
	차량유지비		348,500
	소모품비		76,680
	수선유지비		1,634,300
	식당운영비		167,000
	합 계	47,929,483	6,287,96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